

광주 ‘100억 청년창업펀드’ 국비 확보로 성큼

중기청 공모 선정 60억 유치

7월부터 기업별 최대 4년 투자

올해 27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광주시가 100억원의 총자돈으로 청년들의 창업 돕기에 발벗고 나선다.

광주시는 지역 내 창업투자 활성화와 청년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억원 규모로 결성 중인 청년창업펀드가 중소기업청 출자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청년창업 전문 투자펀드인 광주청년창업펀드 결성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출자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광주청년창업펀드는 총 90억원(시 20억, 모태펀드 60억, 광주은행 5억, 콜리지코너 5억)의 출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3개월 내에 나머지 출자금 10억원을 유치해 총 100억원 규모로 올해 7월부터 투자에 나선다.

펀드 운영기간은 8년이며 최대 투자기간은 4년으로, 주요 투자대상은 청년창업 초기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다.

하상용 광주전남창업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광주청년창업펀드가 결성되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며 모태펀드 선정 결과를 밝혔다.

운영사로 선정된 콜리지코너인베스트

먼트는 창업경진대회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이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청년의 미래’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 하에 광역시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일자리·복지·문화·시정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쳐, 지난달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등 많은 기관들이 시의 청년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 5월 ‘창업도시 광주’를 선포하고 ▲잠시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겸비한 청년창업가들이 자금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을 광역시 최초로

도입하고 ▲창업 지원시설 및 입주공간을 갖춘 ‘I-PLEX광주’를 개관하는 등 청년창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대를 조선대에 이어 청년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하고, 조선대·호남대에도 전남대에 이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200억원) 실시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250억원 규모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I-PLEX광주의 청년창업가 입주공간을 확대하는 등 31개 사업에 395억원을 투입해 2700여 개의 청년일job를 창출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가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행복할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 창업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에 국립심혈관센터 개설을”

전국 유일 초고령화사회…국가적 차원 대책 시급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 진입을 목전에 전복 등을 고려해 광주·전남지역에 심혈관질환의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국립심혈관센터’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심혈관질환(심장·뇌혈관질환, 고혈압·당뇨병)은 2위이다. 특히 심혈관질환은 사망률이 급증해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지난 10년 동안 483%나 증가했다. 심혈관질환 치료에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연간 12조 8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혈관 질환의 국가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심혈관질환은 역학적 지식, 기초연구, 치료기술 등 많은 부분을 외국 지식에 의존해왔고 외국과 다른 유전적 특징,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역학 및 질환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심혈관질환의 중추적 연구센터가 없으며, 전국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11개 권역별 센터가 질환 치료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다.

심혈관 분야 전문가들은 “급성기 및 재활치료 방법을 개선하면 사망과 장애 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일상 복귀도 가능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손실 경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예방 가능성이 높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역학연구, 예방적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설립해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질환 발생, 치료 반응, 예후 관리는 세계적인 관심사여서 일본(국립순환기병센터), 독일(심장센터), 미국(국립심폐혈관센터)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가 차원의 관리를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광주연구개발특구)에는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고급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가기술이 집결돼 있어 타 지역보다 국립심혈관센터로서의 입지 조건이 타월하다.

특히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등록연구 및 심부전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전국 어느 대학병원보다 앞서 심혈관질환 치료에 대한 실적을 갖고 있다.

국립심혈관센터의 광주·전남지역 건립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호남 지역 환자들에게 큰 혜택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복지, 페이스북에서 함께 토론해요

광주시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복지행정에도 도입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광주복지토론포럼’을 개설하고 시민 제안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서 ‘광주복지토론포럼’을 입력하면 된다.

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제안도 가능하며, 제안된 의견 중 공감도가 높은 제안은 내년 광주시 예산 편성 전에 오프라인의 공개 토론회 주제로 채택해 심층 논의한 후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이달까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광주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밤샘주차는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심야 시간대에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주차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 주차로 인해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경찰·화물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5개 반 2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위반차량에 대해 1차 사진 촬영을 하고, 1시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을 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계절 지나 더 깊어진 손맛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 체험학습장에서 최근 열린 ‘제3회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 참여 가족들이 지난 2월 담근 장을 가르고, 전통 고추장을 담그며 전통 발효음식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빛고을장학금, 형편 어려운 학생 우선 지급

올해부터 ‘빛고을장학금’이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되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된다.

(재)빛고을장학재단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주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지급해온 ‘빛고을장학금’은 지금까지 학업성취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생활자금 등으

로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형편이 어려운 돌봄이웃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등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학생(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4.0 이상)과 고등학생(전체과목 중 과반수 과목 이상 11%(2등급) 이내)을 대상으로 선발하던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을 ‘학업장려 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적 기준을 대학생은 평점 3.0이상, 고등학생은 23%(3등급) 이내로 하향하고, 생활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선발 기준을 개

정했다.

또한, 장학생 선발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위원회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시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광주 시내 소재 대학과 교육청 장학사업 담당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1년 무등장학회로 시작해 2002년 확대 개편된 빛고을장학재단은 그동안 총 3878명에게 2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빛고을장학금 관련 문의는 광주시 청년정책과(062- 613-2733).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우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